

민주당, 광주·전남 예비후보 적합도 조사

주말부터 공천 심사 본격화
다음달 2~7일 조사
2~3인 경선에 결정적 영향
각 후보 진영 조직력 총동원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설 명절 관련 민심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4·15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의 공천심사가 이번 주말을 기점으로 본격화된다. 특히, 다음 달 2일부터 7일까지는 광주·전남지역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가 실시될 것으로 알려져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우선 민주당은 오는 28일까지 후보 공모를 마치고 30일부터 서류 심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원혜영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은 28일 하위 20%에 해당하는 의원들에게 개별 통보를 할 예정이다. 또 28일부터 30일 오후 6시까지 하위 20% 대상자들로부터 이의 신청을 받는다. '하위 20%' 평가를 받은 현역 의원들은 경선에서 20% 감산이라는 불이익을 받는다. 하지만 이의 신청은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적을데다 행여나 외부로 새어나갈 경우, 오히려 후폭풍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하위 20%가 공천 배제는 아니지만 감점이 있어 경선에서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며 "일부 의원들은 아예 총선 불출마를 결심하거나 경선을 넘지 못할 가능성도 있어 물갈이 폭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광주·전남지역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가 다음 달 2일부터 7일까지 실시될 것으로 알려져 각 후보 진영에서는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컷-오프 심사의 기준이 될 전망이다

문이다. 이에 따라, 각 후보 진영에서는 조직을 최대한 가동, 중앙당에서 실시하는 여론조사에 응대한다는 계획이다. 또 중앙당의 지역구 실사도 30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실시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실사 결과도 공천 심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지역구 실사와 적합도 여론조사는 공천 심사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특히, 적합도 여론조사는 2~3인 경선 여부에 결정적 영향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모든 조직을 동원해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관위의 서류 심사는 다음 달 5일까지

진행되고, 이후에는 면접(7~10일) 등이 계획돼 있다. 이러한 일정은 2~3일 늦어질 수도 있다. 공관위는 서류심사와 여론조사 결과, 면접 등을 토대로 총선 예비후보의 적격성과 기여도, 의정활동 능력, 도덕성, 당선 가능성 등을 심사한다.

공관위는 심사 결과에 따라 단수 추천 내지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여부 등을 판단한다. 일단 공관위는 2인 경선을 원칙으로 하고 후보자들간의 경쟁력이 비스할 경우, 3인 경선을 결정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또 민주당은 가급적 경선을 통해 후보를 선출한다는 입장이지만, 경쟁력이 현저하게 떨어지거나 지역 특수성이 있을 경

우 해당 지역을 추가로 전략지역(전략공천 검토 대상)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전략공천관리위는 후보 공모가 끝난 뒤 회의를 하고 2차 전략지역을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전남지역 전략공천 지역구는 순천시의 분구 여부 등의 변수도 있어 상당히 늦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광주·전남에서의 민주당 지지율이 최고점을 찍고 있다는 점도 전략공천 결정이 늦춰질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한편, 민주당의 후보 경선은 당비를 납부하는 권리당원 투표와 일반 여론조사를 각각 50%씩 반영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민주 '사법농단 폭로' 이수진 전 판사 영입

"사법개혁 완수"

더불어민주당은 27일 4·15 총선을 앞두고 13번째 영입 인사로 '양승태 사법부 사법농단' 관련 의혹을 폭로했던 이수진(50) 전 수원지법 부장판사를 영입했다.

이 전 판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영입식에서 "사법개혁을 통해 국민과 소통하는 사법부를 만들기 위한 법을 정비하고, 국민의 실제적인 삶을 개선하는 좋은 법률을 만들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다. 이 전 판사는 그러면서 "판사의 정치권 진출이 삼권분립을 흔든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선 "법원에서 사법개혁 활동을 오래 해 왔는데, 한계가 있었다"며 "국민과 함께 국회에서 사법개혁을 완수하고자 한다"고 답변했다. 사법연수원 31기인 이 전 부장판사는 2018년 일제 강제징용 재판 지연 의혹을 제기하는 방송 인터뷰를 하면서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을 알렸다. 민주당은 28일에 14호 영입 인재를 소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보수통합 '빅 이벤트' 나올까

한국·새보수당 비공개 대화...혁통위 "합류선언 이어질 것"

4·15 총선을 향해 바빠 달리고 있는 보수통합 열차가 설 연휴 기간 비공식적인 논의를 이어가면서 이달 안에 '빅 이벤트'가 벌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의 양당 통합 협의체, 혁신통합추진위원회(혁통위)는 지난 설 연휴 기간 모두 공식 회의 없이 '잠행'했다. 그러나 총선까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민감한 사안에 대해 논의가 이뤄야 하는 만큼 오히려 긴장이 있는 논의가 이뤄졌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 한국당과 새보수당의 양당 협의체는 참석자가 누구인지, 언제 어디서 만나는지, 어떤 내용을 논의했는지 등을 모두 비공개에 부친 채 연휴 기간 실무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수통합 논의에 참여한 한 한국당 의원은 27일 "연휴 중에 간극을 좁히는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연휴 직후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국당과 새보수당은 통합의 원칙을 재확인하고 총선 공천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두 당이 '보수재건 3원칙'을 비롯해 보수통합의 큰 방향에 뜻을 같이하는 만큼 물밑 협의가 마무리되기까지 그리 많은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총선까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민감한 사안에 대해 논의가 이뤄야 하는 만큼 오히려 긴장이 있는 논의가 이뤄졌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 한국당과 새보수당의 양당 협의체는 참석자가 누구인지, 언제 어디서 만나는지, 어떤 내용을 논의했는지 등을 모두 비공개에 부친 채 연휴 기간 실무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수통합 논의에 참여한 한 한국당 의원은 27일 "연휴 중에 간극을 좁히는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연휴 직후 가시적인

순천시 국회의원 1석 늘어나

4+1협의체 '분구' 공감대...2월 임시국회 선거구 확정 주목

여야 정치권이 일제히 4·15 총선 모드로 전환한 가운데 2월 임시국회에서의 선거구 확정도 주목된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선거구 확정과 있어 순천시의 분구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우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경찰개혁 법안과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임시국회 필요성을 연일 강조하며 대야 압박을 지속하고 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각 당이 총선 준비로 분주하지만, 민생법안 처리를 마냥 미룰 수 없다"며 2월 국회 소집을 제안한 상태다.

민주당은 대략 130건의 민생법안을 우

선 처리 대상으로 꼽고 있다. 미세먼지법, 지방자치법,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지역상관상생법, 과거사법 등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법안 57건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노사관계조정법 등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개정이 필요한 법률, 각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한 법안 70여건 등이다. 또한 검찰개혁에 이은 경찰개혁 법안 처리도 더는 늦출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제1야당인 한국당은 민생입법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무엇이 실제 처리해야 할 법안인지는 철저히 따져보겠다는 입장이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문재인 정권이 총선에서 이기기 위해 별의별 무리수를 두고 있다"며 "2월 국회에서 이 부분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잘못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내겠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4+1' (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예산안과 각종 법안을 처리하는데 대한 양당이 여전하다는 점에서 2월 임시국회가 소집되더라도 의사일정 합의 등에 난항이 예상된다. 특히, 4+1 협의체가 선거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는 점에서 선거구 확정에도 진통이 예상된다. 이를 반영하듯, 지난해 12월 3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획정 기준을 조속히 확정해달

라"고 촉구 공문을 보냈지만, 아직 여야 간 이렇다 할 의견 교환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선거법은 총선 1년 전까지 선거구를 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선거구 확정에는 피할 수 없는만큼 오는 2월 26일 재외동포 선거인단 등록 시점을 '마지노선'으로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선거구 확정에서 순천시가 2개의 선거구로 분구될 것인지 주목된다.

일단 정치권에서는 순천시의 분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4+1협의체에서 순천시 분구에 대한 공감대가 이뤄진 데다 분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선거구 확정판을 다시 짜야하는 등 상당한 논란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자유한국당의 상당한 반대가 있을 수 있지만 이미 순천시의 분구는 돌이키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이색정당 줄잇는 총선 도전

가자환경보호당·브랜드뉴파티...창준위 15개 등록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처음 도입되는 이번 4·15 총선에서 기성 정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겠다는 이색 정당들이 속속 창당을 서두르고 있다.

27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록을 완료하고 활동 중인 창당준비위원회는 총 15개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하는 공식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난해 12월 27일 이후 등록된 창준위만 6개에 이른다.

페트병살리기운동본부 대표로 활동해 왔다는 '가자환경보호당' 창준위 권기재 대표는 '탈이념·친환경'을 내세웠다.

결혼정보회사 선우를 설립한 이웅진 대표는 대한민국의 낮은 결혼율과 초저 출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결혼미래당'

창당을 준비하고 있다. 결혼미래당은 전국민 결혼 정보서비스 무료 제공, 3000만원 결혼장려금 지원, 최대 10년까지 신혼부부 임대 아파트 지원, 맞벌이 부부를 위한 시간 연장 공공립 어린이집 1천 곳 건설 등을 우선 과제로 정했다.

지난 21일 선관위에 결성 신고를 한 '브랜드뉴파티' 창준위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 사태를 거치며 '부패한 진보'와 '뻔뻔한 보수'에 환멸과 염증을 느낀 2040모임으로 출발했다고 한다. 과거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으로 활동한 조성은 뉴파티 창준위 대표는 "무제한 정치 권력을 교체하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수권 정당으로 우뚝 설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지오옥션부동산 중개법인(주)

"30년 경력의 조여사 010-6211-4585"

부동산 추천 물건

- 건물** 전남 목포시 상동 (준주거지역) 토지 : 1366.5㎡(413.37평) 건물 : 684.43㎡(207.04평) 지상5층 주차장별도 **매매가 50억** 백년대로본 보증금2억7천 월수입2천
- 건물** 광주 서구 치평동 (중심상업지역) 토지 : 434.44㎡(131.4평) 건물 : 2536.91㎡(767.42평) 지하1층 지상7층 **매매가 53억** 상무지구 이마트 인근 보증금 1억7천 월수익 2천5백
- 건물** 광주 광산구 월계동 (중심상업지역) 토지 : 764.8㎡(231.35평) 건물 : 463.54㎡(140.22평) 지상4층 **매매가 49억** 보증금 4억 월수익 1천9백만 임방울대로 대로변 위치최상
- 토지** 광주 광산구 송정동 (일반상업지역) 토지 : 2691㎡(813.99평) **매매가 122억** 분할가능 8차선대로변접 병원, 사옥 건축 적합. 현 건축물 있음
- 토지** 광주 북구 삼각동 (1종일반주거지역) 토지 : 5233㎡(1582.98평) **매매가 58억5천7백** 대로변 위치최상, 조정가능
- 주요소** 광주 광산구 장덕동 (자연녹지지역) 토지 : 1969㎡(595.62평) **매매가 50억**

"수익률 최상, 입지조건 최상 건물 다량 보유"

경매 추천 물건

- 공 장** 전남 곡성군 삼기면 월경리 토지 : 9941㎡(3007.2평) 건물 : 3875.05(1172.2평) **감정가 29억3천만원, 최저가 (56%) 16억4천만원**
- 근린시설** 광주 동구 충장로5가 78 토지 : 1403.6㎡(424.6평) 건물 : 8545.06㎡(2584.9평) 지하2층 지상8층 **감정가 89억6천7백만원, 최저가 (70%) 62억7천7백만원**
- 근린시설** 광주 북구 중흥동 704-9 토지 : 662㎡(200.3평) 건물 : 4555.58㎡(1378.1평) 지하2층 지상10층 **감정가 41억9천8백만원, 최저가 (70%) 29억3천8백만원**
- 근린시설** 전남 곡성군 곡성읍 읍내리 토지 : 607㎡(183.618평) 건물 : 762.51㎡(888.809평) 지하1층 지상3층 곡성온천 **감정가 6억9천3백만원, 최저가(70%) 4억8천5백만원**
- 농 지** 광주 서구 쌍촌동 488번지 266㎡(80.5평) **감정가 2억3천6백75만원** 원룸, 주택부지 적합
- 농 지** 광주 서구 동림동 180-1번지 1098㎡(332.1평) **감정가 2억8천9백9십만원** **최저가 (70%) 2억3백만원**
- 주 택** 광주 북구 운암동 780-56 토지 168㎡(50.82평) 건물 205.87㎡(62.276평) **감정가 1억6천8백만원**
- 아 파트** 광주 북구 두암동 무등산 이스토리 1층 62평형 **감정가 4억1천6백만원** **최저가 4억1천6백만원**

"광고 외 모든 경매물건 상담, 진행가능"

광주·전남 10~200억대 건물, 병원 다량보유 / 매매·임대·급매 전문/ 경·공매 전문

대표공인중개사 전민규 010-4234-8640, 062-714-2251